

# 독일 통일에 근거해 본 남북통일 이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방안

이혜선<sup>1</sup>, 정미숙<sup>2</sup>, 최남용<sup>3</sup>, 이수경<sup>4</sup>

<sup>1</sup>신라대학교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피해자상담심리학과 겸임조교수, <sup>2</sup>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조교수, <sup>3</sup>더밝은 미래연구소 소장, <sup>4</sup>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 Integrated Measures for Resolving Psychological Problems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Based on Reunification of Germany

Hye-Sun Lee<sup>1</sup>, Mee-Sook Cheong<sup>2</sup>, Nam-yong Choi<sup>3</sup>, and Soo-kyoung Lee<sup>4</sup>

<sup>1</sup>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Victim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 Security Policy, Silla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ongbang Culture University, Naturopathy

<sup>3</sup>Chief, A Brighter Future Research Institute

<sup>4</sup>Assistant Professor, Sungkyul Educational Graduate School, Counseling Psychology Major

<sup>4</sup>Corresponding author: [faithlsk@sungkyul.ac.kr](mailto:faithlsk@sungkyul.ac.kr)

Received June 7, 2021; Accepted June 17, 2021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기반으로 남북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독일은 통일 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적 갈등·후유증이 남아 있다. 제도적인 통합에 비해 심리적인 통합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어떤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든 심리적 갈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우 독일에 비해 통일 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폐쇄적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된 실상을 감안해 볼 때, 심리적 갈등이 서독과 동독의 갈등보다 더 클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남북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이질적인 사회체제로 인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통일 후의 사회적·심리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일에 앞서 심리적 갈등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프로그램들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상담이 긴급히 요구되는 내담자들의 발굴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통일에 관한 상담 연구가 부족한 편이므로, 남북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상담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심리적 통합을 위한 남북한 주민들 간에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여러 상담기법을 활용한 소규모의 장기간의 교류를 제안하며, 심리적 통합을 위한 상담 정책을 논의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psychological problems that may aris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and to present an integrated plan to solve them. Though Germany is making various efforts for social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but psychological conflicts and aftermath remain even after 30 years. Compared to institutional integration, psychological integration takes a long time,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psychological conflict no matter what form of unification takes place. In the case of North and South Korea, compared to Germany, pre-unification exchanges are not actively taking place, and given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closed and iso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psychological conflict will be greater than that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The difference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ue to the heterogeneous social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s liberal democracy and socialism can lead to social and psychological conflicts after unification, so preparations for psychological conflicts must be prepared prior to unification. There are several institutions that provide counseling servi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difficulties, but the programs are



lacking in systematicity, and there are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such as the discovery of clients who urgently require counseling. In addition, since counseling studies on unification are insufficient, many counseling studies for psychologic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conducted.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for the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s mentioned, a small, long-term interaction using various counseling techniques is proposed, and a counseling policy for psychological integration is presented as a point of discussion.

**Keywords:** Reunification of Germany,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Psychological conflict, Psychological integration

## 1. 서론

대한민국은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인한 국토분단, 민족분단 등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인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70여 년을 살아왔으며, 이러한 체제의 차이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이질적인 차이를 낳고 있다.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점진적인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떤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든 이에 대비해야 하며<sup>1)</sup>, 제도적인 통일 이외에도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심리적 수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sup>2)</sup>. 더욱이 심리적인 통합은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므로<sup>3)</sup>, 통일 전 단계의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심리적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통일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통일은 경제적 우위에 있던 서독의 주도하에 흡수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sup>4)</sup>, 동독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 발생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태에 놓였고, 가치관의 혼란 및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sup>5)</sup>, 심리적 불안, 무기력 등의 후유증을 겪었으며, 이는 통일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sup>6)</sup>. 법적, 제도적 장치인 기본질서를 동독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비교적 순조로웠지만, 정치와 문화, 사회적 연계망, 일상 사회생활 등에서는 많은 저항에 직면하여 동독 고유의 정체성이 부활하고 끈질긴 자기 방어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7-9)</sup>. 제도적 통일에 비해 심리적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것이다.

이에 남북통일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체제가 다른 남북한의 정치, 경제가 가져올 심리적 문제이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해가는 생존전략을 통해 국가관, 개인주의적 의식의 심리적 변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정체성의 변화는 사회문화적 이탈행위로 이어지며, 나아가 사회통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최근 경제난과 자본주의 및 외부 문화의 유입 등으로 북한주민들은 교육, 근로단체, 언론매체 등의 재생산 기제들을 통해 접해왔던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신념, 가치, 의미 체계를 접하고 의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sup>10)</sup>. 독일의 통일에서 동독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 노출되면서 자유경쟁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2등 국민이라 생각하며 심리적 갈등을 겪은 것처럼<sup>5,11)</sup>, 북한 주민들도 다른 체제 속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동안의 세뇌 받아온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 및 사회적응에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점진적인 독일 통일이 가져온 심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남북한의 내재된 상호 적대적 감정과 이질화된 사고 체제는 통합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다른 면은 있으나 독일 통일 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방안을 살펴본다면 남북통일 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통일, 남북통일 인식, 탈북자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남북통일 이후 발생할 심리적 문제를 예측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독일 통일 후의 심리적 문제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축조된 후 28년이 지난 1989년 11월 9일 서베를린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수만 명의 동독인들의 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동독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독일을 선포하면서 통일이 되었다<sup>12)</sup>. 독일의 통일을 통해 남북통일을 비교한 논문은 예상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독일 통일 후의 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10여 년 전 연구<sup>13), 13), 14)</sup>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가올 남북한 통일의 연착륙을 위해 독일의 통일 후 발생한 심리적 문제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남북통일 후 대두될 심리적 문제를 예측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동서독의 통일이 1990년 이룩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기쁨을 주는 소식이자 축하할 만한 사건이었다. 서독 지역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서독인 스스로를 ‘역사의 승리자라고 느끼며 통일이 커다란 이윤을 가져올 동독 및 유럽으로의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일 통일에서 최종 목적지가 분명한 합의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통일은 동서독인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통합’, ‘국가 정체’, ‘생활 조건의 평등’ 등과 같은 용어들이 연구 논문과 정치적 수사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두 국가 대표들 간의 협상이 어떤 새로운 국가정체를 다루지 않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투표도 없었다는 것이다<sup>17)</sup>. 이것이 독일의 통일 후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정치, 행정기술, 경제, 문화 분야에 있어 동독이 서독화 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엘리트 교류가 이루어졌고, 구 동독지역 대부분의 요직을 서독인들이 차지하면서 서독인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적인 성공의 기회가 열렸다. 통일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서독인들의 욕구는 심리적 갈등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동독인들은 통일을 통해 훨씬 더 나은 삶, 생활수준의 물질적 향상, 여행의 자유,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법치국가를 염원했었다<sup>15)</sup>. 그러나 동독인들에게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다. 통일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동독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금과 생산수단이 없었고 대부분의 토지와 부동산 또한 동독인들의 사유재산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에는 물질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동독인들은 패배의식, 무기력, 허탈감에 빠져들었다<sup>16)</sup> 독일에서 직접 구동독 주민들을 인터뷰 한 질적연구<sup>15)</sup>에서 구동독 사람들은 동독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서독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과거 이력이 평가절하되며, 별거, 이혼 등으로 가족 간 불화 및 가정 파괴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동독 사람들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가 서독 중심으로 진행되고, 동독이 배제됨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느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통계적인 수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통일 직후 사망률 통계에서 동독 주민이 서독 주민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특히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혈액순환 질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sup>11)</sup>. 물리적인 벽과 울타리는 없어졌지만, 심리적인 벽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두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불신감을 주었던 것인데 실제로 1993년 말까지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조금씩 호전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sup>17)</sup>. 독일 통일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리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구동서독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논문에서 독일이 현저한 지역 간의 갈등,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내지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정의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한 서독인일수록 동독인들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이후 2000년도 초반 설문조사에서는 동독 출신 주민의 63%가 자신들을 서독 출신 주민들과 ‘동족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sup>13)</sup>, 동독 주민은 서독 사람들보다 열위에 놓인 2등 국민의식<sup>15), 11)</sup>을 보였고, 서독 주민들 역시 통일 이전보다 낮은 자긍심을 보였다<sup>18)</sup>. 그리고 현재까지도 동독과 서독 사이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문화<sup>19)</sup>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배적인 규범이 서독인들의, 서독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동독의 과거에 대한 역사 수업도 불충분하게 다루어졌으며<sup>21)</sup>, 동독인들의 개인 경험이 평가 절하되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지는<sup>22)</sup> 등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통일 이후 30년이 흐른 연구<sup>23)</sup>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감안해 볼 때, 독일 통일 이후의 심리적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 후의 심리적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남북통일 후 발생할 심리적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 2.2 남북통일 후 심리적 문제 예측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남북으로 나뉘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정치 체제에서 살아왔다. 사회체제는 사람들의 의식과 심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남북 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우선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통제된 공동 작업을 통해 수동성, 집단주의, 협동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sup>1,24)</sup>, 대체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고<sup>3)</sup>,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 근거한 가부장적 가족주의 특성을 보인다<sup>18)</sup>. 또한 북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체사상, 독재체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마치 종교집단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와 유사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에 충성하며, 유교적 태도, 가치 지향성, 직선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sup>1,18)</sup>,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불안과 공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sup>25)</sup>. 이에 비해 남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를 중시 여기며, 남한 사회에는 자율성, 개인주의, 경쟁의 특성이 나타난다<sup>1,24)</sup>. 북한의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과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하에 형성된 심리적 차이는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동독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교육을 받는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특성을 생각해 볼 때, 통일은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심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통일 후 새로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거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 후의 심리적 변화는 탈북자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남한에서의 사회·문화 적응이 탈북자에게는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위기상황이라고 언급한다<sup>26)</sup>. 특히 북한 청소년들은 한국의 새로운 법과 제도 및 개인주의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여 학업부진에 대한 심리적 문제 및 사고방식과 놀이 문화차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sup>27)</sup>.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sup>10)</sup>, 이주자의 문화적응 전략과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문화적응 전략 간 차이가 클수록 이주자의 적응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sup>28)</sup>. 정진웅(2004)<sup>29)</sup>은 이를 ‘자발적 비적응’<sup>17)</sup> 즉, 탈북자들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남한 사회라는 지배문화에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는 현상으로 명명하였다<sup>30)</sup>.

남북통일 이후의 심리적 어려움은 탈북자들의 적응의 어려움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남북 주민의 서로 다른 기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 주민의 통일 기대감을 살펴보면,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라는 질문에 50.7%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3%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7.8%만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2.2%로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 기대감은 매우 낮았다<sup>31)</sup>. 남한 주민들은 통일이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강했는데, 특히 남한 주민들은 통일을 할 경우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sup>32)</sup>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48명(49%), 같은 민족끼리 재결합해야 하니까 24명(25%), 남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16명(17%),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6명(7%), 남북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1명(2%)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여 제한적이지만, 남북이 서로 통일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갖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독일에 비해 남북은 상호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북한은 동독에 비해 더욱 폐쇄적인 독재체제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통일을 맞이한다면 통일 후 남북간의 심리적 문제는 독일보다 더욱 장기적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사회적 경험의 차이, 남북 주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 차이, 심리적 이질감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은 불안, 소외감, 정체성 변화로 인한 심리적 혼란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남한 주민들 역시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3 남북통일 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방안

남북 통일 이후의 심리적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이 통일 후에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독일통일의 사회심리적 결과들은 정치적 민주화가 곧 사회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준다<sup>33)</sup> 독일통일은 외적인 정치·경제적 변화가 근본적 향상이라 할지라도, 변화만으로는 광범위한 체제전환의 과정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동독과 서독 간에 많은 상호교류를 하였지만 정작 심리적 통합을 위한 준비는 미비한 편이었다<sup>34)</sup>.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이었는데, 독일은 통일 전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으며<sup>34)</sup>, 대신 서독의 오랜 전통을 가진 시민정치 교육이 통일교육을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데, 서독의 시민정치 교육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으로 전파되어 동독 지역의 민주화와 사회문화적 통일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하였다는<sup>34,35)</sup>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 서독에서의 교육도 동독 문제에 대해서는 편향적이었으며, 동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었고<sup>34,36)</sup>, 실제로는 서독 위주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sup>34)</sup>, 양가적인 평가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독일의 통일교육이 동독 주민들의 문화적 이질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교육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합교육과정의 연구와 실행은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교육 이외에 서독과 동독 사람들의 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종교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서독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부차적인 재정만을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직접적 서비스는 민간기관이 담당하게 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시민대학, 스포츠 동호회, 세미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민들과 현지 주민 간에 친밀한 교제와 접촉을 늘리려고 노력하였으며<sup>18,37)</sup>, 건강, 영어 교육, 컴퓨터 등의 비정치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시도하였다<sup>14,18)</sup>. 스포츠, 건강 등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주제이며, 또한 스포츠 활동은 고정관념을 낮추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38)</sup>. 따라서 스포츠 운동과 같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질적인 체제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화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의 상호교류와 연속적인 통일정책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동독 주민들의 2등 국민 의식, 소외감, 상실감, 서독 주민들의 우월 의식과 낮은 자긍심, 서독과 동독 주민들 간에 상호불신 등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sup>5,18)</sup>, 한국은 통일된 후 더 큰 심리적 문제를 떠안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사회 여러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sup>6)</sup>. 특히 남북한 상호교류가 언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지속적인 교류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리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심리적 화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태도가 요구된다<sup>1,18)</sup>. 이를 위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의 통일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호문화적 관점은 자민족중심주의의 인식과 탈피를 강조하며 집단의 동질성보다 개인의 이질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sup>39)</sup>, 남북한 주민들은 약 70여 년의 분단 기간으로 형성된 심리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이질적인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사회적 차원 뿐 아니라 심리적 차원 등 여러 영역의 요소들이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sup>5)</sup>. 남한 사회 체제를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고 남한에 순응하는 동화 정책에 기반하여 통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서독 위주의 흡수통일로 인한 심리적 문

제들이 남북한에도 그대로 재연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분단 이후 반공이데올로기 위주였던 통일교육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제우위의 접근방향에서 상호이해,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표의 평화공존 접근 방향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sup>34,35)</sup>. 평화공존 교육과 더불어 북한을 통일의 동등한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하며 북한 문화를 이해해 보는 상호문화관점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리적 갈등으로 이어진 점에서, 교육 내용의 또 다른 방안으로 직업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 후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통일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직업교육훈련의 로드맵 마련, 현장 중심의 실무적 교육훈련 방안 마련, 사회통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도모,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sup>40)</sup>,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직업상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문화 관점의 교육에서 남북 주민들 간에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 간에 심리적 화합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성열 외(2007)<sup>118)</sup>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상호 간의 문화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도록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장기간 자주 접촉하는 것이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있다<sup>41)</sup>. 남북 주민들은 같은 언어와 풍습으로 4천년 이상 함께 살아온 심리적인 원형을 갖고 있으므로<sup>1,42)</sup>, 한국의 역사에 대해 함께 학습하는 내용 등을 프로그램의 요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 전에는 남한과 탈북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통일 후에는 남북한 주민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남북한 주민들 간에 심리적인 화합을 꾀해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 이외에 통일 후 발생할 심리적 문제 및 문화적응을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것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독일의 사례처럼 국가 주도 뿐 아니라 민간에서 통일 후의 심리적 갈등과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심리적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통일과 관련하여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민간 주도의 기관들이 더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수는 많은 편은 아니다. 문헌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통일과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파악하여 정리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은 5곳이 있으며, NGO 단체, 사설 상담기관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7곳이 있는데, 정부와 민간 기관들 모두 주로 탈북자들의 심리지원과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을 통해 남한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 Table 1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국립서울병원, 제일기획, 서울백병원 스트레스 연구소 등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강연, 숲체험,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sup>43)</sup>, 검색되지는 않지만 통일 관련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더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Table 1. Organizations providing psychological services related to unification**

기관명	서비스 주체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1	하나원	정부 (통일부)	탈북자
2	남북하나재단		
3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정부 (교육부)	탈북 청소년
4	북한이탈여성 상담 치유 센터	정부 (경기도)	탈북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동기 부여를 목표로 사회적응 교육 실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생활안정 지원, 의료지원, 공동생활시설 제공,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리적 지원 수행  
탈북청소년의 교육문제(학력부진, 심리적 불안, 가정갈등, 학고미취학 및 중도탈락) 진단과 지원 사업 수행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원에 의한 개인상담, 전문가상담, 집단상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Table 1. Organizations providing psychological services related to unification (Conti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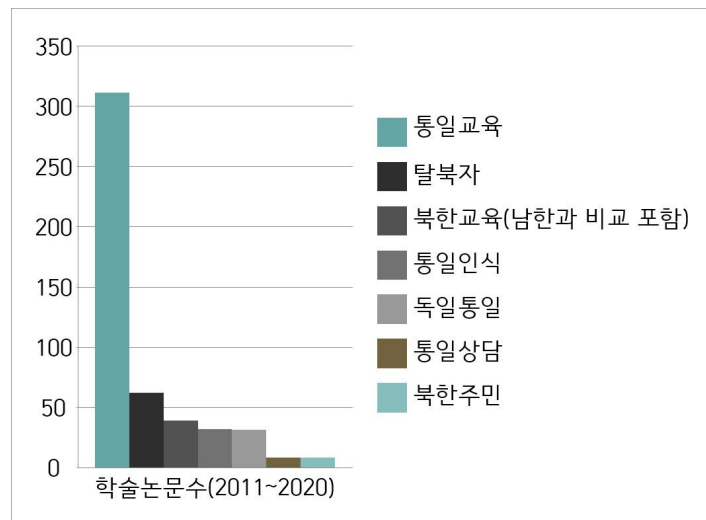
기관명	서비스 주체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5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정부 (보건복지부)	탈북자들의 우울증, 자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자살예방 활동	
6	마인드 심리케어센터 (새터민 상담)	민간	탈북자들만을 위한 상담기관은 아니지만 새터민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사회부적응 등의 영역에 대한 새터민들을 위한 특화된 상담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7	NHC 사단법인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탈북자들의 북한체제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탈북인/다문화탈북인 가정 전문상담, 멘토멘티 성장 프로그램, 남북 연결 청소년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8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탈북 여성	북한이탈여성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 시스템’ 제공. 이를 통해 탈북과정의 심리적 상처 치유 및 회복, 여성폭력문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심리적·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9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착지원본부)		탈북자	개인상담, 전화상담, 가족상담, 일상생활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사회 적응 교육 사업을 통한 북한생활경험자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
10	늘푸른상담협회 부설 가정행복상담센터		탈북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상담치료 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및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11	경남새터민지원센터 (가톨릭여성회관)		탈북자	가정방문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취업연계, 문화공연 체험 및 기행 등을 통한 심리상담 및 남한적응 지원, 새터민 토론회 개최와 캠페인을 통한 새터민 인식향상 프로그램 제공
12	새조위	탈북자	통일교육 및 탈북자들의 심리치료, 역량강화교육, 가족상담, 코칭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 지원	

여러 기관들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은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sup>43)</sup> 하지만 2017년 여성가족부의 ‘북한이탈여성 폭력 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 폭력상담소가 탈북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폭력에 따른 피해를 잘 노출하지 않는 사례의 특성상 내방상담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내담자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미진해 보인다는 문제<sup>44)</sup>, 체계적이지 않은 민간 주도의 탈북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sup>45)</sup>.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아닌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탈북자들을 상담 받게 하려면 어떤 연결망이 필요할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관과 정부기관과의 상호협력 체제도 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상담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의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과의 연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 산하 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거나 바우처 지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충분히 치료될 만큼 장기적으로 상담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sup>46)</sup>.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를 통해 현재 탈북자들 대상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장래 통일을 대비한 심리적 지원방안을 계획해 놓는다면, 통일 이후의 심리적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경우 생활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일 이후에 상담자들에게는 심리상담 뿐 아니라 이들의 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통일 이후에는 남한 주민들도 갑작스런 사회적 변화로 높은 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문화적인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변화 및 문화적 혼란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귀국자나 중도입국자들을 위한 문화적응 훈련들이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응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편이다. 현재 탈북자들에 대한 심리적 도움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고려해 볼 때 상이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응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적응 훈련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와 Fig. 1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된 통일에 관한 국내학술 논문의 주제를 정리한 것인데, 통일에 대비한 상담 연구는 탈북자, 통일교육, 통일인식 등의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현재까지 상담과 관련한 연구로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민주시민 가치, 사회성, 연대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윤리상담<sup>47)</sup>,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구술치유방안<sup>43)</sup>, 남북 주민들 간의 심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sup>48)</sup>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추후 통일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상담기술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 Number of domestic research papers on unification

연구주제	통일교육	탈북자	북한교육 (남한과 비교 포함)	통일인식	독일통일	통일상담	북한주민
학술논문수 (2011~2020)	311	62	39	32	31	8	8



**Fig. 1.** Number of domestic research papers on unification

### 3. 논의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비단 민족의 숙원이나 당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sup>49)</sup>.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중대과오는 사회심리적 차원을 경시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은 통일 이전에 서독과 동독 간 인적 왕래, 화물교류, TV 상호시청의 허용 등 상호교류를 많이 하였다<sup>18)</sup>.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통일 이전의 독일보다 이질화와 분열이 더 심화된 상태<sup>2)</sup>임을 고려해 볼 때, 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놓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냉전 체제 이후 국내외 상황 및 남북 관계 변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변화, 남북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남북관계에 화해모드가 형성된 적도 있었으며<sup>2)</sup>, 개성공단 사업, 남북 문화교류 사업 등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남북한 관계는 화해 모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험 등 불안정한 모습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의 편향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sup>2,18)</sup>.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분단의 고통과 폐해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남북간의 이질화로 통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드러나기도 한다<sup>49)</sup>.

서로 간의 편견, 상호불신을 감소시키고 남북의 이질적인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체제하에서 형성된 특성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은 정착지를 선택할 때 남한을 우리 민족의 땅이라 생각하며 가장 먼저 정착할 곳으로 고려하지만, 실상 남한에 와서 차별과 소외, 편견, 한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등<sup>50)</sup>을 경험하며 ‘민족적 동일성’에 대한 욕망이 좌절되는 충격을 받는다<sup>43)</sup>. 이장호(1993)<sup>42)</sup>남북이 분단 이전 4천년 이상을 동일한 문화로 살아온 심리적 원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남북이 이러한 동일한 민족으로서의 심리적 원형을 기억하며 남북통일에 있어서 상대를 대상화된 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수반한 앞으로 실현될 통합된 미래 공동체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연대적 파트너로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특히 상담을 활용한 교류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상담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선 상담 시 공감적 이해, 대인관계 전략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에서 ‘수인하기’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 치료법에서 이야기하는 ‘수인하기’에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 포함된다<sup>51)</sup>. 상대방의 가치관, 생각이 자신과 모두 일치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남북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인 태도,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집단상담을 통해 수인하기와 같은 상담기술을 익혀 나간다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언어적인 상담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예술치료는 인간 내면의 상처나 왜곡된 심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도 개인이 잠재력을 키우고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sup>52-54)</sup>. 이에 탈북아동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탈북아동의 스트레스 감소<sup>55)</sup>, 긍정적 자아개념과 사회성 향상 및 문제행동의 감소<sup>56)</sup>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 비언어적 기법을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체제의 전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언어적 기법을 이용한 또 다른 치료 프로그램으로 신체 활동과 결합된 아유르베다 상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유르베다 상담은 홀리스틱 상담인데, 이 아유르베다상담 이턴<sup>57)</sup>을 활용하여 먼저 인식단계에서는 자신이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수행단계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에 알맞은 기법을 선정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가 잘 진행될 경우 다음의 변형단계에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다. 남북 주민이 소규모의 집단상담에서 위의 상담기법, 예술치료, 홀리스틱 상담 등을 함께 경험해본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력과 수용력의 향상,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한 자기회복력으로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정치·경제적 외형적 통합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통합의 내적 통합에 상담자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데, 선행문헌들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는 통일에 대한 상담 영역에서의 대비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지식인들, 예술인,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Gerechtigkeits-Komitee(정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 것처럼<sup>17,58,59)</sup>, 우리도 통일을 대비한 상담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연구하고 심리적인 통합 방안을 위한 예방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의 심리적 외상, 체제의 변화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심리적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일선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듯이, 통일에 앞선 심리적 예방교육이 국민들에게 통일 전부터 제공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학자들은 치료, 상담 뿐 아니라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과 정책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접촉이 어려워 탈북자 연구에 근거하여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 및 통일 이후의 심리적 문제를 추론해 보았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결과를 북한 주민 전체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최근 독일 통일 이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독일의 최근 통일 이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김명식,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호, pp.555-562, 2015.
2. 박형빈, 이미식, “통일시대 도덕과에서 편향 극복과 화합문화 창출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pp.1-22, 2018.
3. 유영옥, “남북한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심리사회적 조망”, 한국정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pp.173-201, 1997.
4. W. Weidenfeld, and K.-R. Korte, “Handbuch zur deutsch Einheit”, Aktuaiseierte Neuausg, Frankfurt/Main; New York, 1996.
5. 이영란,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한국사회학, 제39권 제1호, pp.137-165, 2005.
6. 백용기, “남북한 통일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시사점- 남북한 내적 통합을 위하여”, 기독교사회윤리, 제42권, pp.9-39, 2018.
7. H.-U. Kohr, “Rechts zur Bundeswehr, Links zum Zivildienst? Orientierungsmuster von Heranwachsenden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Munich: SOWI-Arbeitspapier, Vol. 77, 1993.
8.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푸른숲, 2000.
9. 채정민,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독일의 정신건강 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통일심리학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3권 제1호, pp.91-114, 2007.
10. 조정아, 임순희, 노귀남, 이희영, 홍민, 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1. L. Probst, “동서독의 이질감에 대한 성찰. 『통일과 문화: 통일독일의 현실과 한반도』”, 역사비평사, pp.87-100, 2003.
12. 홍성이, “분단 통일국의 통합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경기도, 2003.
13. 김수배, “구 동독의 철학 이해와 독일 통일 직후의 사상적 화합의 문제”, 哲學研究, 제90권, pp.1-32, 2004.
14. 김해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서울: 통일교육원, 2002.
15. 양창석,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 통일 주역들의 증언”, 서울: 늘봄플러스, 2011.
16. H. E. Braehler, and E. Richter, “Deutsche Befindlichkeiten im Ost-West-Vergleich. Ergebnisse einer empirischen Untersuch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0-41/ 1995”, pp. 13-20, 1995.
17. M. Schmitt, “Gerechtigkeit”, L. von, Hockel, C. M. & Walter, M., Handbuch der Angewandten Psychologie: Grundlagen Methoden-Praxis, pp. 1-12, 1994.
18.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Linehan, 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3권 제2호, pp.33-54, 2007.
19. J. L. Scotson, and N. Elias, “Etablierte und Außenseiter”,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7-56, 1990.
20. B. Rommelspacher, “Anerkennung und Ausgrenzung: Deutschland als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Campus Verlag, 2002.
21. U. Arnsward, “Zum Stellenwert der DDR-Geschichte in schulischen Lehrplänen”, Das Parlament (pp. 41-42), pp. 28-35, 2004.
22. P. Köpping, “Integriert doch erst mal uns!: Eine Streitschrift für den Osten”, Berlin: Ch. Links Verlag, 2018.
23. 잉그리트 미테, “동-서독의 차이와 지배문화: 독일 통일 30년의 재평가를 위한 제언”, 경제와 사회, 제125호, pp.162-188, 2020.

24. 민경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통일”, 심리과학, 제3권 제1호, pp.84-99, 1994.
25. 유혜란,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17-155, 2014.
26. 박은미, “북한 대학생의 남한에서의 학업 및 사회생활 적응”,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7. 허성호, 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복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도구를 이용한 사례연구”, 스트레스研究, 제21권 제3호, pp.193-202, 2013.
28. J. R. Kunst, and D. L. Sam,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cculturation Expectations and Muslim Minority Youth’s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37, No. 4, pp. 477-490, 2013.
29. 정진웅,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179-194, 2004.
30. 한나, 이승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4권 제2호, pp.485-512, 2015.
31. 김병로,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권 제1호, pp.101-139, 2012.
32. 강동완, 박정란, “사람과 사람”, 통일문화연구원, 부산: 너나드리, 2016.
33. H. J. Maaz, “From Emotional Stasis to Market Orientation: Socio-psychological Issu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Germany”,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6, No. 1, pp. 87-98, 2002.
34. 채정민, 김종남,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 pp.519-544, 2008.
35. 한만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36.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갈등을 넘어 통일로-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통일교육원, 2004.
37. 윤인진,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
38. 김경근, 황여정,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제39권 제1호, pp.87-117, 2012.
39. 장한엽,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제46권, pp.347-366, 2011.
40. 김소영, 이영민, “독일 통일기의 고용과 직업교육훈련 정책: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1호, pp.265-272, 2017.
41. 김혜숙, 김도영, 신희진, 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2호, pp.51-89, 2011.
42. 이장호,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pp.115-125, 1993.
43. 김종근, 박재인, 남경우, 곽아람, 풍영순,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인문학적 치유 방안의 가능성-구술 치유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9권 제2호, pp.199-240, 2017.
44. 인천일보: 탈북여성 폭력상담소 ‘무명무실’, <http://www.incheonilbo.com/news>, 2021.
45. 김지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46. 노은희, “심리상담 전문가의 탈북배경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47. 박형빈, “탈북학생 윤리상담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TTP) 개발과 적용”, 윤리교육연구, 제58권, pp.159-189, 2020.
48. 김지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일 한국의 사회치유 방향성 모색: 북아일랜드, 캄보디아, 독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4권 제4호, pp.145-185, 2017.
49. 김진화, 이미경, 이인정, 차문석, 최은석, “2018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17.
50.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서울: 선인, 2012.
51. M, Linehan, “전문가를 위한 DBT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 조용범 역, 더트리그룹, 2020.
52. 고현, 이혜선, 고은별, 차금안, 김보현, “심미감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경기: 정민사, 2016.
53. G. M. Furth, “The Secret World of Drawings: A Jungian Approach to Healing through Art”, Toronto, Canada: Inner City Books, 2002.
54. J. A. Rubin, “Art Therapy: An Introduction”, Taylor & Francis, 1999.

55. 송희정, “미술치료가 내적 스트레스 감소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탈북 아동을 중심으로”, 차의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56. 고은희, “집단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57. 정미숙, “아유르베다 이론과 실제”, 서울: 여래, 2017.
58. 이영이, “독일 통일 7년 후: 심리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구동서독 지역 간 불평등”, *오늘의 문예비평*, pp.149-172, 1998.
59. L. Montada, “Fallen der Gerechtigkeit: Zur Begründung der Umverteilungen von West nach Ost”, *Bericht über den 38. Kongress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Psychologie in Trier 1992, Band2*, pp. 31-50, 1993.